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碩士論文

중국 홍색공급망 연구:

-대만,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Red Supply Chain:

Its Political Economic impacts on Taiwan and South Korea

研 究 生：林 靜 禧 撰

指導教授：謝 目 堂 博士

中華民國　106 年　12 月

碩士論文題目：

中國紅色供應鏈對台灣、韓國政治經濟之影響研究

研究生：林靜禧

審查委員：_____(簽章)

_____(簽章)

_____(簽章)

指導教授：_____(簽章)

系 主 任：_____(簽章)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中華民國　106 年　12 月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주요 이론 및 개념

2.1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과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5

2.2 안행형(雁行形) 모델 8

2.3 국제정치경제적 시각 15

3. 선행연구 검토

3.1 한국의 관련 선행연구 22

3.2 대만의 관련 선행연구 25

4. 연구방법 및 구성 27

Ⅱ. 중국 홍색공급망의 등장

1. 홍색공급망의 형성 배경 29

1.1 자본 형성 및 기술 축적 단계: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32

1.2 산업·기술 고도화 단계: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35

1.3 본격적인 추격 및 추월 단계: 수입대체화 및 현지 기업 육성 40

2. 홍색공급망으로 인한 중국, 한국,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변화 43

3. 홍색공급망의 목적 45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Ⅲ. 중국 홍색공급망의 영향
1.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1.1 전반적인 영향 46
1.2 주요 산업별 영향
(1) 디스플레이 산업 48
(2) 반도체 산업 53
(3) 스마트폰 산업 58
2.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61
2.1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62
2.2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63
3. 기타 영향 66

Ⅳ. 중국 홍색공급망에 대한 대응 방안
1. 한국의 대응 방안 68
1.1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68
1.2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69
2. 대만의 대응 방안
2.1 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70
2.2 대만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71

Ⅴ.
결론 74

【참고자료】 77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표 목차

표 1 34

표 2 38

표 3 39

표 4 49

표 5 55

표 6 55

표 7 59

표 8 60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그림 목차

그림 1 7

그림 2 41

그림 3 42

그림 4 49

그림 5 53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中文摘要

本研究探討中國大陸紅色供應鏈之定義、形成背景、目的，並分析其對台灣與韓國的影響與因應策略，預期作為雙方堆動相關政策之參考依據。本研究定義紅色供應鏈為：中國大陸以國內生產的產品取代以往依賴進口的中間財，進而占領全球價值鏈中附加價值較高的地位，終致創造中國大陸主導的全新國際分工型態。本研究採用雁行模式與重商主義、自由主義等國際政治經濟理論的觀點分析紅色供應鏈，研究發現紅色供應鏈為加速調整雁行模式國際分工型態的主因之一，亦對台灣與韓國的政治經濟造成相當程度的衝擊。根據本研究分析中國大陸經由資本累積與技術進步階段、產業與技術升級階段、追趕與超越階段形成了紅色供應鏈。本研究透過面板產業、半導體產業、智慧型手機產業等台灣與韓國的主力產業為例探討紅色供應鏈對兩國經濟層面造成的影響，並提出近期實例推測紅色供應鏈於政治層面可能引起的交互作用。

關鍵詞：紅色供應鏈、政治經濟、全球價值鏈、中國大陸、台灣、韓國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with the so-called China's 'Red Supply Chain', which is defined as 'the strategy that forms a new structure of China-le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or division of labor through substituting imported intermediary goods with its domestic ones as well as occupying more higher added-values in the global value chains. It also aims at understanding such political economic changes' impacts on the industries and domestic politics of the China's major trading partners— Taiwan and South Korea. Based upon the theories—mercantilism, liberalism, and flying-geese model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e find that this political change plays a significant role of opportunity as well as threat to the foreign relation between China and its two major neighbors. Such an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three case studies on display, semiconductor, and smartphone industries, which are seriously influenced by the China's Red Supply Chain; first, in economic perspectives and second, in political perspective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political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its two neighbors that urgently deals with the changes and impacts from Red Supply Chain in comparative perspectives.

Key words: Red Supply Chain, political economic, global value chains(GVC), China, Taiwan, South Korea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는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된 그 영향력은 외교, 안보 등과 같은 정치적 측면까지 파급되었고 다시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특히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한 관계이므로 국제적인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치 또는 경제 어느 한 시각이 결여된다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치와 경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행위자들 간의 경제적 교류는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는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부와 권력의 분배는 행위자들의 국익과 국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행위자들 간의 경제적 교류는 상호의존성을 야기하고 의존을 덜 하는 측이 그렇지 않은 측에 정치적 영향 또는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역학 관계는 본 연구의 주요 비교 대상인 중국과 한국, 대만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2016년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의존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인 만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비롯해 대만의 독립성향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경제 제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과거 중국의 영향 하에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등 유사한 정치·경제적 경로를 밟아왔다. 또한 1960년대를 전후로 각각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빈약한 부존자원, 높은 인구 밀도, 협소한 내수시장 등의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대만 모두 민주화를 실현하면서 지금까지도 유사한 정치·사회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옥스포드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무역 유사성은 0.67(1.0은 수출군이 완전히 동일함을 뜻함)에 달하는데 이는 양국이 경제구조와 수출 품목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1]. 그 외에도 양국은 제조업이 GDP의 3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GDP의 50% 내외에 달할 만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각각 63.9%, 96.3%[2]를 차지할 정도이다.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의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유사성을 가진 한국과 대만은 공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발표한 이래 약 30여 년 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1978년에 세계 10위였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

[1] Heath, Michael. 2017. “The Strange Case of Korea and Taiwan's Diverging Export Fortun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3-27/the-strange-case-of-korea-and-taiwan-s-diverging-export-fortunes (검색일: 2017. 05. 26).

[2] 김윤희. 2017. “[한중 수교 25 주년①] 무역통계로 보는 한중 경제.”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60549 (검색일: 2017. 09. 01).

2010년 미국과 함께 G2 반열에 오를 만큼 성장하였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이후 2009년부터 8년 연속 세계 1위 수출대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고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무역기구, G-20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중국이 달성한 성과에 배경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특히 한국과 대만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대만은 중국이 제조대국, 수출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 대만→중국→세계 시장'이라는 국제분업 구조를 이루어왔다. 즉,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를 가공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에 소비재 또는 최종재를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각각 7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3], 대부분이 중국에서 사용되어 최종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임금 상승, 가공무역 억제 정책, 산업 고도화 등으로 인해 과거 한국과 대만 등 국가에서 수입해 오던 중간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수입대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의 역할 비중의 축소와 기존 국제분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3] 中央銀行. 2017. "中央行理監事會後記者會參考資料." https://www.cbc.gov.tw/public/Attachment/7122716544171.pdf p.23 (검색일: 2017. 10. 23).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러한 제품의 생산 기회가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동남아 국가들에게 창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깊이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4]. 이러한 수입 중간재 대신 자국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수출하고 더 나아가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홍색공급망(紅色供應鏈, Red Supply Chain)'이라 일컫는다. 이는 2013년 9월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가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 대신 애플(Apple)사의 공급사슬에 편입하여 대만, 한국과 같은 관련 기업들의 공급사슬 내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5]을 토대로 대만의 주요 경제잡지인 천하잡지(天下雜誌)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서 홍색은 대만에서 주로 중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이므로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홍색공급망의 형성 배경에서 시작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까지 파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홍색공급망에 대해 한국과 대만 정부가 제시한 정부 정책을 비교하고 개별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홍색공급망이라는 현상에 대해 한국과 대만,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 이론 및 개념

---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search Dept. 2016.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6: Subdued Demand: Symptoms and Remedi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6/12/31/World-Economic-Outlook-October-2016-Subdued-Demand-Symptoms-and-Remedies-44024 pp.173-174 (검색일: 2016. 12. 06).

[5] Sarah, Mishkin. 2013. "Chinese Companies Move into Supply Chain for Apple Components." https://www.ft.com/content/d70fca52-2691-11e3-9dc0-00144feab7de. (검색일: 2016. 11. 07).

2.1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분업이란 생산 과정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여러 사람이 분담해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업의 개념을 처음 소개했던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하듯 분업은 생산력을 제고해 개인의 복지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업이 없으면 모든 생산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업은 개인 또는 기업에서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분업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연, 인구, 자본 등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도 달라진다. 이 때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해 생산 및 수출하는 국제분업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국제분업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각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을 통해 그들의 식민지로 이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공업의 발전에 따라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국제분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제무역으로 이어졌다. 홍성범 외(2011)는 국제분업을 정치·경제적 행위로 간주하고 아래 4단계로 분류하였다. 1950년대 이전까지를 제1차 국제분업체계, 1960년대-1980년대를 제2차 국제분업체계, 1980년대-2000년대를 제3차 국제분업체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하는 시기를 제4차 국제분업체계로 분류하고 각 시기의 특징을 정리하였다[6]. 조윤애 외(2008)에 따르면 국제분업구조는 전통적인 '산업 간 국제분업(inter-industry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에서 '산업 내 국제분업(intra- industry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로 변화되었고 산업 내 국제분업은 기존의 '차별화된 제품 간의

[6] 홍성범. 김기국. 김석관. 임상현. 유철. 2011. "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I) - 동북아 국제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1-08.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7.

수평적 국제분업(horizontal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에서 '동일 제품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수직적 국제분업(vertical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으로 변화되고 있다.[7] 여기서 수직적 국제분업은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 간의 국제분업을 말하며, 국내에서 원자재부터 최종 생산품에 이르기까지의 종적인 분업을 수직적 분업이라고 지칭한다[8]. 이처럼 국제분업의 정의는 시기별, 단계별로 변모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가가치의 개념이 추가된 글로벌 가치사슬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윤우진(2016)은 국제분업 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총수출에서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면 생산활동의 국제분업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9].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에 대해서는 김종기 외(2014)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가 정설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경영활동에서 생산 공정 단위를 국내외에 분산 배치해 나가는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0]. 글로벌 가치사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1>의 스마일 커브(또는 스마일 페이스)이다. 이는 1992년 대만 에이서(Acer)그룹의 창업자 스전룽(施振榮)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U자 곡선의 양끝, 즉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의 가치사슬활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류(mid-stream)에 위치한 제조, 조립은 저부가가치 활동을 의미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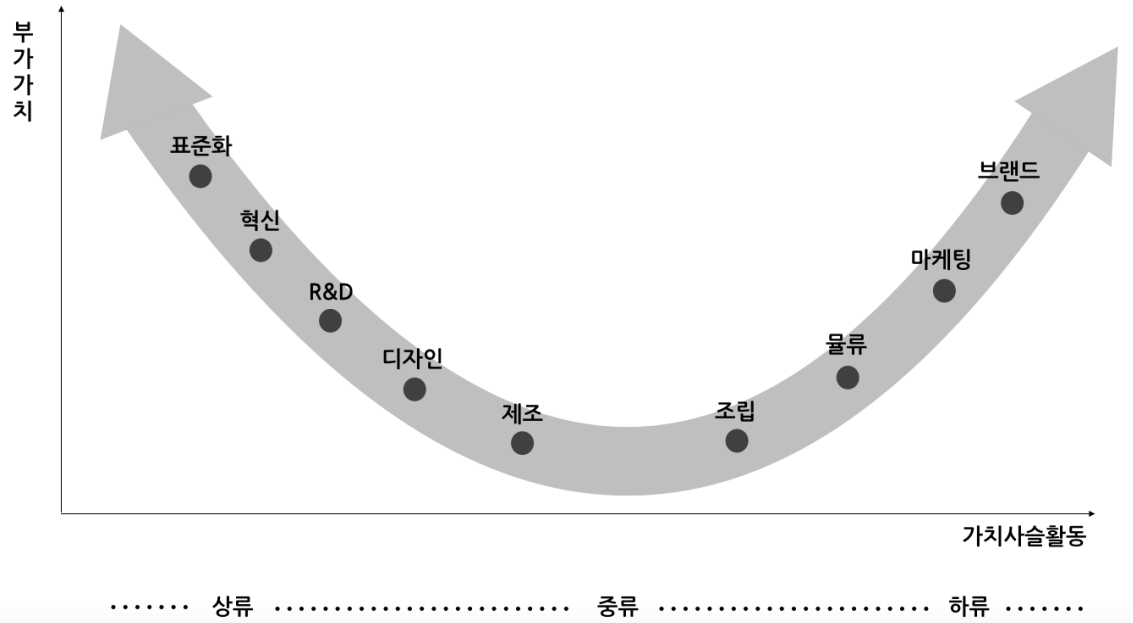
[7] 조윤애. 박종복. 오영석. 이상. 최윤희. 2008. "신기술산업의 국제분업구조와 글로벌 전략." 연구보고서 제 532 호. 서울: 산업연구원. p. 41.

[8] 홍성범. 김기국. 김석관. 임상현. 유철. 2011. "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I) - 동북아 국제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1-08.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7.

[9] 윤우진. 2016.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서울: 산업연구원. p. 34.

[10] 김종기. 서동혁. 주대영. 최동원. 김재덕. 2014.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연구보고서 2014-734. 서울: 산업연구원. pp. 17-18.

<그림1> 스마일 커브: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별 부가가치 크기



*출처: Peter Draper, Uri Dadush, Gary Hufbauer, James Bacchus and Robert Lawrence. 2012. "The Shifting Geography of Global Value Chain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rade Policy."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Global Trade System Report. Cologny: World Economic Forum. p. 2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 또는 국가로 하여금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도 기타 지역의 중간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할 수 있게 한다[11].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iPhone) 가치사슬을 들 수 있다. 아이폰 생산에 있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 대만, 일본 등은 중간재를 제공하며, 중국은 저부가가치 부문인 단순 조립을 담당한다. 따라서 아이폰의 최종 수출국이 중국으로 표기되더라도 가장

[11] OECD.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http://www.oecd-ilibrary.org/sites/9789264189560-sum-ko/index.html?itemId=/content/summary/9789264189560-sum-ko&mimeType=text/html. (검색일: 2017. 09. 02).

높은 이윤은 미국이 가져가며, 중국에 돌아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12].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분업에 부가가치를 접목시킨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홍색공급망 역시 국제분업과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해될 수 있다. 과거 한국, 대만, 중국은 각기 다른 산업에 특화해 상호 보완적인 국제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또한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고부가가치 부문을, 중국은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부문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세계 경제의 변화를 비롯해 중국의 임금 상승, 가공무역 억제, 수입대체 가속화, 산업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국제분업 구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국제분업 구조에서 한국과 대만을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점차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홍색공급망'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영향으로 상정하고 본문에서 이에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2 안행형(雁行形) 모델

흔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 과정 또는 국제분업 구조를 안행형(雁行形, Flying Geese Model) 모델로 설명한다. 이 모델은 1930년대 일본 학자 카나메 아카마츠(Kaname Akamatsu)가 제창한 것으로 이후 (Saburo Okita), 이페이 야마자와(Ippei Yamazawa), 키요시 코지마(Kiyoshi Kojima) 등에 의해 확장·발전되었다. 아카마츠의 고전 안행형 모델은 국가를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

[12] 아이폰 4(16G)의 경우, 미국 국내 판매가가 560 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미국이 368 달러(65.7%)를, 중국이 14 달러(2.5%)를 가져간다.
(윤우진. 2016.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서울: 산업연구원. p. 30 에서 재인용)

경제체(advanced economy)와 후진 경제체(less-advanced economy)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산업 발전 패턴을 ①수입→국내 생산(수입 대체)→수출, ②소비재 생산→자본재 생산, 단순한 제품 생산→복잡한 제품 생산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후진 경제체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선진 경제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 발전을 시작한다. 수입이 누적되고 선진 경제체로부터 기술이 이전되면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고 기존 수입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후 해당 기술의 표준화와 생산 비용의 상대적인 절감이 경쟁력으로 이어져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후발 경제체는 선진 경제체로부터 자본 및 생산 기술을 단계별로 이전 받으면서 기존의 단순한 제품에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는 발전 패턴이 나타난다. 이상 두 가지 패턴을 각각 함수로 표현할 경우 역V자 형태[13]가 나타나는데 아카마츠는 이를 기러기 편대가 V자 형태를 이루며 비행하는 모습에 비유하여 '야생 기러기 비행 패턴(wild-geese-flying pattern)'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레이먼드 버논(Raymond Vernon)의 제품주기 이론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두 패턴을 ①수입→국내 생산(수입 대체)→수출→역수입, ②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③선도국 그룹→신흥공업국(중간국) 그룹→후발국 그룹 등으로 확장시킨 것을 근대 안행형 모델이라 지칭한다[14]. 이는 '선도국 일본→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아세안 국가 및 중국 등 후발국'이 수직적인 분업 구조를 지니고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기러기 편대의 선두에서 한 산업에 특화하고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를 상실하면 2선에 위치한

---

[13] 한 산업의 수입, 생산, 수출을 함수로 표현할 경우 및 한 국가의 산업 발전 궤적을 함수로 표현할 경우 각각 역 V 자 그림이 나타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Kaname, Akamatsu. 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ing Economies』 Vol. 1, No. 1. Chib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를 참조.

[14] Shigehisa(2004)는 안행형 모델을 'Akamatsuís original flying geese paradigm'과 'modern flying geese paradigm'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비요한 연구이다.
(Kasahara, Shigehisa. 2004. "The Flying Geese Paradigm: A critical study of its application to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MPRA Paper 21881. Germany: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신흥공업국으로 산업을 이전한 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 신흥공업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이전 받아 발전시키고 또 다시 비교우위가 저하된 산업은 순차적으로 3선에 있는 후발국에 이전된다. 이 때 각기 다른 산업에 특화한 일본, 신흥공업국, 후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가치사슬의 개념에서 보면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신흥공업국과 후발국이 그 뒤를 이어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 모델은 선두국인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이전한 것이 동아시아의 산업 고도화,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15]. 195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해 있던 일본은 1960년대부터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자본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신흥공업국으로 이전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신흥공업국은 1980년대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아세안 국가에 이전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의 이전은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 고도화에 밑거름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인 섬유 산업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진시원, 홍익표(2017)는 안행형 모델을 통해 1950년대 일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동아시아 경제체제가 1980년대 일본, 신흥공업국, 아세안 국가를 포함하는 광대한 경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16].

1990년대 이후부터 안행형 모델이 한계에 봉착해 더이상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Kwan(2002), 카츠지 나카가네(Katsuji Nakagane), 왕자황(王佳煌) 등과 같이 안행형 모델이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15] 박번순. 2002.『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제주도권』.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36-37.

[16] 진시원. 홍익표. 2017.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학』.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pp. 490-491.

김진영(2007)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 이후 기존 안행형 모델의 가설에서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를 유일한 주체로 각국 간 산업의 수직 이동만을 설명한 안행형 모델은 동일 산업의 생산 과정을 국제적으로 분화시키는 현재 분업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뿐 아니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도 특화한 중국의 사례는 일본이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그 외의 국가는 순차적으로 낮은 부가가가치 산업에 특화한다는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17]. 임혜란(2013)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안행형 모델은 국가를 분석 단위로 간주해 각국의 산업 구조나 국내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도국의 동일 산업을 이전 받은 각국의 상이한 발전 궤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주장을 잘 설명해 주는 예시이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대만에 이전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따라 최종재 조립과 부품 생산에 특화하였다. 1990년 이후 한국은 자동차 수출국이 된 반면 대만은 부품 생산에 주력하는 등 같은 산업을 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데 안행형 모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행형 모델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쇠퇴산업이 저기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 비교우위를 선점한 첨단산업이 고기술, 자본·기술집약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첨단 산업에도 저기술 가치사슬이 존재하며, 전통 산업에서도 고기술 가치사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일본→한국, 대만→아세안→중국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이전은 가치사슬의 분업으로 변화되어 안행형 모델이 적용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18]. 이처럼 국가를 분석 단위로 설정할 경우 안행형 모델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며, 각 국가가 특정

---

[17] 김진영. 2007.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지역주의에의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 81-82.

[18] 임혜란. 2013. “생산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재편.” 『평화연구』 Vol.21 No.1.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pp. 78-84.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의 많은 연구들은 후발국이 선도국을 따라잡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추월은 일어나지 않으며, 일본을 유일한 선도국으로 간주하는 것을 안행형 모델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카마츠의 원론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체제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모델,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는 모델,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소규모의 모델 등 다수의 모델이 존재한다[19]. 과거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행형 모델의 후발국이었으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갔고 결국 자국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안행형 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후발국도 충분히 선도국 그룹에 합류할 수 있고 추월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아카마츠는 안행형 모델의 구성국들이 모두 일정한 속도로 발전할 때에만 기본 형태인 V자 대형이 유지되는데 선도국과 후발국은 일정한 속도로, 반드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간혹 휴지(休止) 상태에 머물러 하위 단계에 있는 국가에 추월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도국이 그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산업 발전이 필요한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2선으로 심지어 3선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정체함에 따라 선도국의 위상을 상실하고 신흥공업국 또는 후발국에 따라잡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한편 안행형 모델의 산업 간 수직적 분업 구조 및 비교우위에 따른 순차적인 발전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간 수직적 분업 구조는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약화된 것일 뿐이다. 일본, 신흥공업국, 중국은 여전히 서로 다른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에, 신흥공업국은 중상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신흥공업국에 주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19] Kaname, Akamatsu. 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ing Economies』 Vol. 1, No. 1. Chib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p. 19.

신흥공업국은 대부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에 소비재를 주로 수출한다. 예컨데 반도체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일본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한국, 대만과도 약 4-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단기간 내에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산업에 특화하는 산업 간 수직적 분업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지배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20]. 앞서 검토한 연구들 외, OECD(2010), 박번순(2001, 2005) 등은 중국의 부상을 안행형 모델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우선 1990년대 이전의 중국은 안행형 모델에 따라 발전해 왔다. 한 예로 신발 산업을 들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신발 산업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어 1970-80년대 한국과 대만을 거쳐 1980년대 동남아시아,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 국가→중국'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기술 이전 과정에 부합한다. 또한 중국의 대부분 산업은 과거 생산 기술 부족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했으나 순차적으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 생산에 돌입,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제1유형인 '수입→국내 생산(수입대체)→수출' 형태와 일치하다. 한편 중국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전자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산업에 이르기까지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이는 제2유형에서 제시한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변화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안행형 모델 이탈 현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중국의 부상이 과거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상호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켰으며,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추월하고 더 나아가 신흥공업국, 선도국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Lall and Manuel(2004)은 2000년대 중국의 수출구조가

[20] 진시원. 홍익표. 2017.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학』.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p. 494.

2000년 아세안 국가들보다 1990년 한국과 대만의 수출구조에 더욱 근접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21] 이는 중국이 안행형 모델에서 한 단계에 앞서 있던 아세안 국가들을 뛰어넘어 한국 또는 대만에 접근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안행형 모델의 구성 국가들은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 경쟁을 통해 기러기 대열의 선두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도국이 혁신과 발전을 지속할 때에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미에 위치해 있던 중국이 앞서가던 국가들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것은 기존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이두원 외(2011)은 한국과 중국 간의 발전 격차를 소득과 무역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 최근 중국 경제는 안행형 모델을 따라 주변 국가를 추격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22]. 이처럼 중국의 부상은 안행형 모델이 설정한 순서를 바꾸어 놓았을 뿐, 붕괴를 초래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위상을 지키려는 선도국, 신흥공업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중국 간의 관계가 안행형 모델의 적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안행형 모델을 더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설을 제기하였다. APEC(2005)은 기존 모델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인 '개구리 도약형 프로세스(leapfrogging process)'를 제시했는데 이는 주요 기술 변화가 우연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이 중간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고급 기술 시장에 뛰어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23]. 즉 수입 단계를 생략하고 국내 생산, 수출 단계로 도약하거나 노동집약적 산업을 건너뛰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21] Lall, Sanjaya. Mauel, Albaladejo. 2004.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 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Vol.32 No.9. Amsterdam: Elsevier Science B.V. p. 1447.

[22] 이두원. 김선화. 김동희. 2011. "The Estimation of the Developmental Gap between China and Korea." 『동북아경제연구』 23 권 3 호. 서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p. 92.

[23] APEC. 2005. "Patterns and Prosp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APEC Region."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05/12/Patterns-and-Prospects-on-Technological-Progress-in-APEC-2005. pp. 1-2 에서 재인용 (검색일: 2017. 09. 02).

박번순(2005)은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 모델의 수명주기가 '안행형→대나무자본주의형→수련형'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나무자본주의형이란 비교우위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공정을 분절하는 형태를 가리키며, 수련형은 하나의 광역집적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여 상당 수준의 수직적, 수평적 분업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24].

그렇다면 안행형 모델의 후미에 위치해 있던 중국은 어떻게 아세안 국가를 추월하였고 더 나아가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대만을 추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 또는 추월의 가속화를 초래한 것은 바로 홍색공급망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중국은 다년간 자본 형성 및 기술 축적 단계, 산업·기술 고도화 단계, 본격적인 추격 및 추월 단계 등을 거쳐 홍색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안행형 모델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에 위치한 한국, 대만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 간의 산업은 점차 중첩되고 각국은 상호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3 국제정치경제적 시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계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또는 경제적인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 현상[25]'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는 각각 권력(power)과 부(wealth)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이지만 권력을 사용해 부를 추구하고 부를

[24] 박번순. 200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SERI 연구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17, 31.
[25] 박경서. 2001. 『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p.vii.

이용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된 분야가 아닌 일원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논의하는 학문이 바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다.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킨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정치경제학은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reciprocal interaction between economics and politics)을 연구하는 학문[26]'이다. 역사적으로 국제경제체제는 국제정치체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외교, 전략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적 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은 크게 중상주의 관점(mercantlist perspective), 자유주의 관점(liberal perspective), 급진주의 관점(radical perspective)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제정치의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기초한다. 본 연구는 이들 중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에서 홍색공급망을 조망한다.

중상주의는 국제정치 이론 중 현실주의를 국제경제 영역에 접목시킨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으로 경제적 민족주의, 신중상주의, 국가주의 보호주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발전해왔다. 중상주의의 핵심 가정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경제학자 제이콥 바이너(Jacob Viner)이다. 그에 따르면 중상주의의 핵심 명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는 권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둘째, 권력은 부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셋째, 부와 권력은 국가 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넷째, 권력과 부는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28]" 이렇듯 중상주의는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경제(부)보다 정치(권력)를 우선시 하며, 경제력을 추구하되 이를 안보, 권력

---

[26] Robert, Gilpin.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p. 22.

[27] 박경서. 2001.『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p. 23.

[28]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인간사랑. pp. 60-61.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정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하는 중상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은 상호의존 관계를 야기하고 이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력이 불가피한 오늘날 중상주의는 권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으며, 일반적으로 고전 자유주의, 근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는 합리적인 행위자,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치를 경제보다 우선시하는 중상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경제는 진보적이며, 정치는 퇴행적인 것[29]'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주체가 아닌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 등 합리적인 행위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처럼 합리적인 경제 주체와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시장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이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면, 국가 간의 무역이나 경제 교류는 경제 성장, 상호 혜택 등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가설로 연결된다. 아울러 이들은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중요시하며, 국제무역을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보고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각국이 비교우위에 의해 자국에 유리한 산업에 특화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상품, 자본, 기술 등을 이전시키면 국가의 이익 극대화와 국가 간의 갈등 해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이론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계급, 착취,

[29]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인간사랑. p. 58.

불균등, 종속 등에 관점에서 출발한 급진주의는 제국주의론, 종속이론, 근대세계체제론 등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또는 구조주의라 불린다[30].

상기 세 가지 이론은 각기 국제정치경제 현안을 분석, 설명, 예측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몇 가지 단점이 있다. 길핀에 의하면 중상주의는 첫째, 국제관계에서 협력이 가져다 주는 이득을 무시하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나 더 나아가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 sum game)이라고 믿는다. 둘째, 권력과 부의 추구가 갈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셋째, 국가의 구성원, 국제기구 등의 역할을 차치하고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국가의 이익을 모두의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31]. 한편 자유주의는 첫째, 합리적인 경제 행위자들과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가설은 극히 단순하고 비현실적이다. 둘째, 경제와 정치를 분리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사회·정치적인 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국제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셋째, 국가 간의 호혜적인 관계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국가 간의 협력은 반드시 평화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32].

본 연구는 상기 세 가지 이론 중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홍색공급망을 분석한다. 우선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홍색공급망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가들에 상호 윈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과거 한국, 대만, 중국은 각각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된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즉 한국과 대만은 가치사슬에서 저부가가치 산업 부문을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한 중국에 이전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등 중·고부가가치 부문은 자국에서 담당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더 나아가 한국과 대만이 세계 시장에서 주문을 받으면 자체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 현지에서 이를 조립·생산하여 최종재를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 구조를

---

[30] 진시원. 홍익표. 2017.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p. 56.
[31]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인간사랑. pp. 81-84.
[32]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인간사랑. pp. 77-79.

형성하게 되었다. 홍색공급망이란 이러한 기존의 국제분업 구조에서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위상을 대체하고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를 형성하려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과 대만이 보다 상위 산업을 개척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중국이 기존의 LCD 시장을 장악하자 한국과 대만은 신기술을 적용한 OLED로 중심축을 옮기는 등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당분간 수익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한 산업의 기술 격차 축소와 평준화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LCD 시장을 중국에 넘겨주더라도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과 대만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 대만,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정치적인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호 간의 적대적인 행위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의식해 갈등을 기피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성환, 강진권(2012)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확대가 한국에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 관계에서 평화적 유대 관계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33] 중국시보(中國時報)를 비롯한 대만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대만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2016년 대만의 정권 교체 당시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해 보면, 홍색공급망을 통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호혜적인 것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단절될 경우 상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홍색공급망에 편입되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33] 주성환. 강진권. 2012. “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1 권 제 1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p. 22.

대체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홍색공급망을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자본, 기술 등을 저개발국으로 확산시켜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산업 고도화와 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공동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중상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홍색공급망은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대만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자유주의의 견해와 같이 과거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들의 관계는 호혜적인 상호의존이 아닌 한국, 대만의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으로 이어졌다. 2016년 중국의 10대 무역국 중 한국과 대만은 각각 6위(6.9%)와 7위(4.9%)에 그친 반면 한국과 대만의 최대 무역국 모두 중국인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은 한국과 대만의 중국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및 취약성(vulnerability)을 증가시켰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와 2016년 독립 성향의 정부 출범에 의한 중국의 대대만 경제제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윤기 외(2015)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대중국 무역 확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국가 자치권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4]. 한편 홍색공급망은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저부가가치를 담당하는 중류에 위치해 있던 중국이 고부가가치 부문인 상류 및 하류를 향해 도약하고 더 나아가

[34] 조윤기. 김운겸. 조은선. 2015. "대만·한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 간 무역의 정치적 외부성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p. 46.

한국과 대만의 위상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자국의 정치·경제에 유리한 분업 구조를 형성하려는 중상주의적 목표와 일치하다. 그 외, 중국의 홍색공급망 형성 과정은 전형적인 중상주의 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 특정 산업 집중 육성, 수출 주도 성장 전략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및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이는 자국산 생산품으로 기존의 외국산 수입품을 대체하겠다는 홍색공급망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다. Atkinson, Cory and Ezell(2017)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지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예로 1,600억 달러의 정부 펀드를 국유기업에 투자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제고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혁신 중상주의' 정책 강화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쟁 국가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35]. 이처럼 홍색공급망은 한국, 대만과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이용하여 자국에 종속되도록 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국제체제의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할 패권국의 위상을 차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만희(2017)는 경제 관계 확대가 반드시 협력 또는 우호관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넘어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중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대미 배타적 중화세력권 구축과 또는 조공관계의 부활일 것으로 전망하였다[36]. 중국의 홍색공급망이 확대된다면 향후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는 협력과 평화가 아닌

---

[35] Robert, D. Atkinson. Nigel, Cory. Stephen, J. Ezell. 2017.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SSRN Electronic Journal. Washington, DC: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 pp. 15-16.

[36] 이만희. 2017. "사드(THAAD) 분쟁의 본질과 해법."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filedn.php?conf_seq=2&bd_seq=3700&file_seq=8386. pp. 19-20. (검색일: 2017. 06. 26).

갈등과 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중상주의는 홍색공급망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이론에 치중해서는 홍색공급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적당히 절충해 홍색공급망에 접목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3. 선행연구 검토

3.1 한국의 관련 선행연구

홍색공급망은 아직 한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대신 홍색공급망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중국의 산업고도화, 경제 구조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위상 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들 참고하였다.

2012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정환우(2011)는 중국에 대한 가공 단계별 수출입 구조를 분석했는데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제3시장 재수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가공 및 현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유사한 가공단계별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 관계 기관들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①최종재, 특히 소비재의 수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②일본과 대만의 수출 증가 품목을 벤치마킹하고, ③대중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무역 관련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이봉걸(2012)은 ①중국의 수출 부진이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 구조를 가진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②대중국 투자 하락, ③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및 현지 매입 비중 증가, ④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 약화 등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의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구조 탈피,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 한중 FTA 조기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38].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구조 및 수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지현 외(2015)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은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대만,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①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②중국의 수입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③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 차별화, ④수출 업종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⑤대만 및 일본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9]. 김성순(2016)에 따르면 중국은 성장 둔화와 함께 투자에서 소비 주도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국은 ①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 동향을 수출과 연계시킬 방안 모색, ②급성장하는 중국 소비 시장 확대와 해외 직구를 통한 수출 확대, ③한국이 우위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적극 활용, ④중국의 생산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 마련,

---

[37] 정환우. 2011.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로 본 중국 내수시장 변화와 시사점 ." Trade Focus Vol.10 No.23.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8] 이봉걸. 2012. "대중국수출 감소원인과 전망 ." Trade Focus Vol.11 No.37.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9] 정지현. 김부용. 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연구자료 15-0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⑤내수용, 서비스,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40].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홍성범 외(2011)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공장'이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중국이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 센터'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신성장 산업의 기초 기술 개발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대외개방정책과 대내적인 산업구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1].

한편, 한국에서는 드물게 홍색공급망을 직접 인용한 연구도 있다. 천용찬 외(2016)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과거 가치사슬 내의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과정에서의 현재 디자인, 구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자체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입지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①차별화된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마련, ②주요 산업 및 차세대 전략 산업에 대한 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향상 계획 수립, ③한·중 FTA, RCEP, TPP 등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42].

한편, 조윤기 외(2015)는 한국, 대만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이 정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확대가 확대될 수록 '부'의 정치적 외부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이는 한국, 대만의 대중국 무역 확대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국가 자치권의

---

40 김성순. 최명식. 김인지 . 2016.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41 홍성범. 김기국. 김석관. 임상현. 유철. 2011. "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I) - 동북아 국제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1-08.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2 천용찬. 한재진. 2016. "중국의 가치사슬 역할 변화와 시사점 - 중국 홍색공급망의 확산을 예의주시하자." 경제주평 16-33.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민감성 및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정치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3].

그 외에 이원근(2015)은 최근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한중 FTA, 대만과 조인한 양안 ECFA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비교하였다. 한중 FTA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며, 양안 ECFA는 중국의 대대만 정책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서술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대외 무역협정 추진 행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 추구보다 정치적인 우위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4].

3.2 대만의 관련 선행연구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관련 연구는 홍색공급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중 홍색공급망 관련 주요 연구에는 린젠푸 외(林建甫 2016)가 있다. 대만은 중국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이 추락하는 등 위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대만의 전자 부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LED 산업이 큰 영향을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대만보다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색공급망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 아울러 ①대만은 제한적인 경제 자원으로 인해 각 산업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②무역의존도가 높은

---

[43] 조윤기. 김운겸. 조은선. 2015. “대만·한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 간 무역의 정치적 외부성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44] 이원근. 2015.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전망 -양안 ECFA 와 한중 FTA 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 집 4 호. 대구: 대한정치학회.

도서형경제체(海島型經濟體)인 대만은 기술 혁신과 브랜드 구축에 각별히 힘써야 하고, ③홍색공급망의 위협에 대해 일본과 같은 기술 선도 국가로 거급나 경쟁을 피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홍색공급망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④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⑤핵심 인재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45].

왕젠취안(王健全 2016)은 대만에서 보도되었던 홍색공급망 관련 기사를 정리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홍색공급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들은 중국이 대체 가능한 산업 또는 기술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 내에 대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향후 대만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대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홍색공급망을 해석한 이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내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대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중국에 진출한 대만상인(台商)들을 고립시켰을 뿐 아니라 대만의 몇몇 산업을 대체해 버렸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생산력 4.0 프로젝트(生產力4.0計畫)'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6].

쉬비수(許碧書 2015)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규획'을 기점으로 양안 간의 산업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홍색공급망 현상으로 대만의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대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위상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13·5 규획'과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생산력 4.0 프로젝트', ②'경제 체질 강화 대책(經濟體質強化措施)', ③'혁신 대만 2020' 등을 제시하였다[47].

---

[45] 林建甫. 陳華昇. 譚瑾瑜. 吳孟道. 張博欽. 唐豪駿 . 2016. "紅色供應鏈對台灣產業之影響評估." 台灣證券交易所 **105** 年度委託研究計畫. 台北: 臺灣證券交易所股份有限公司.

[46] 王健全. 2016. "面對紅色供應鏈的思維及因應策略." 亞洲金融季報－2016 夏季號. 台北: 國立臺北大學亞洲研究中心.

[47] 許碧書. 2015. "紅色供應鏈對我國之警訊與因應對策." 兩岸經濟統計月報 267 期. 台北: 行政院陸委會.

좡이치 외(莊奕琦 2012)는 양안 간의 정치적인 충돌이 양안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1996년부터 2008년 간의 자료를 통합해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대만상인들의 대중국 투자와 대만의 대중국 수출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고 대만인들의 양안관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지도자의 대대만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양안 간의 무역 확대는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양안 정치 정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8].

4.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자료분석, 문헌연구를 통한 정성적인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홍색공급망과 관련된 한국, 대만, 중국의 주요 산업 및 정책 자료, 특히 한국의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자료와 대만의 경제부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局), 행정원 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 TAITRA, 대만경제연구원(台灣經濟研究院) 등의 자료, 중국의 상무부(商务部),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해관총서(海关总署)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홍색공급망이 한국과 대만의 산업과 국내정치에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 홍색공급망에 대해 연구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관련 이론과 개념,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홍색공급망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홍색공급망이 형성된 배경을 ①자본 형성 및 기술 축적 단계: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48] 莊奕琦. 劉冬威. 2012. “經濟整合與政治衝突的關聯性 —以兩岸關係為例.” 中國大陸研究 第 55 卷 第 1 期. 台北: 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투자, ②산업·기술 고도화 단계: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③본격적인 추격 및 추월 단계: 수입대체화 및 현지 기업 육성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중국, 한국,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중국이 홍색공급망을 형성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홍색공급망이 한국과 대만 경제,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주요 산업별, 최근 사례 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주요 산업으로는 ①디스플레이, ②반도체, ③스마트폰 산업이 있다. 아울러 홍색공급망이 한국과 대만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예측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현재 홍색공급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Ⅱ. 중국 홍색공급망의 등장

1. 홍색공급망의 형성 배경

2013년 9월,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 대신 애플사의 공급사슬에 편입하여 대만, 한국과 같은 관련 기업들의 공급사슬 내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49]를 게재하였다. 다시 말해, 애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 수는 2011년 8개에서 2017년 19개로 급증하였을 만큼 기술이 고도화되어 현재 해당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고 있는 대만, 일본,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대만의 주요 경제잡지 천하잡지(天下雜誌)로 같은 해 10월 중국을 상징하는 색인 '홍색'과 '공급사슬'의 합성어인 '홍색공급망(紅色供應鏈, Red Supply Chain)'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는 '홍색'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 홍색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만에서 일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것을 형용할 때 사용되는 색[50]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중문 '供應鏈'은 영문으로 'Supply Chain', 국문으로 '공급사슬', '공급체인', '서플라이체인' 등으로 번역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紅色供應鏈'은 2015년 10월 KOTRA

---

[49] Sarah, Mishkin. 2013. "Chinese Companies Move into Supply Chain for Apple Components." https://www.ft.com/content/d70fca52-2691-11e3-9dc0-00144feab7de. (검색일: 2016. 11. 07).
*원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Chinese companies are increasingly designing sophisticated components for Apple's iPhones and iPads instead of just supplying low-cost labour for assembling the high-tech devices. The shift is an indication of how Chinese companies' ris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are threatening the Taiwanese, Japanese and South Korean companies that now dominate the global electronics supply chain.*"

[50] 그 외에도, 대만인들은 색으로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 예로, 녹색은 현 집권당인 민진당(民進黨)을, 청색은 국민당(國民黨)을 대표하며, 이는 해당 정당의 지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타이베이무역관[51]에서 최초로 번역되어 이미 한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52], 별도의 번역 없이 '홍색공급망'을 사용하기로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만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된 홍색공급망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은 홍색공급망을 단순히 중국의 수입대체화, 현지조달률 제고 등 전략으로 이해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홍색공급망을 '중국이 기존에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중간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를 형성하려는 전략'이라고 정의한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홍색공급망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홍색공급망이라 명명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홍색공급망을 위기로 인식한 대만 언론이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여긴다. 드물게 홍색공급망에 대해 언급한 张稚丹, 吴亚明(2015)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이 국가의 자원을 투입해 홍색공급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정책을 통해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53]. 사실상 중국의 홍색공급망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며, 중국이 자국 산업·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의도치 않게 주요 무역 대상인 대만에 영향을 미친 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구조, 대중국 수출 비중 등에서 대만과 유사한 한국에도 홍색공급망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과거 한국, 대만과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국들은 비교우위에 따라 자본·기술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참여국인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

[51] KOTRA 타이베이무역관은 2015 년 10 월 2 일 개최한 '글로벌 경제와 한-대만 산업협력포럼'에서 최초로 '紅色供應鏈'을 '홍색공급망'으로 번역, 2015 년 12 월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52] 네이버뉴스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2015 년 12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총 111 건의 '홍색공급망'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홍색공급사슬' 또는 '홍색서플라이체인' 등 다른 번역 결과는 검색되지 않았다.

[53] 张稚丹,. 吴亚明. 2015. http://cpc.people.com.cn/BIG5/n/2015/0728/c83083-27371377.html (검색일: 2017. 05. 09).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즉 한국과 대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문을 받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중간재를 자국에서 생산한 뒤 중국으로 수출, 최종적으로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산업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분업 방식은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위상을 대체하여 직접 글로벌 주문을 받고 자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쟁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는 2016년을 기준으로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이 각각 전체 수출의 31.7%, 40.1%을 차지하고 그 중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체의 70.9%, 81.5%에 달하는 한국과 대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홍색공급망을 통해 기존의 공급사슬에서 한국과 대만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사슬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제품들을 자체 생산, 자체 소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해 한국, 대만 등 기술선진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기술만으로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의 세계 시장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도 한국, 대만을 제치며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홍색공급망의 등장은 한국과 대만의 경제 영역에만 파급을 미친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최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및 대만의 독립성향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제재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도 이어진 바 있다.

주지하듯이 홍색공급망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근 40년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한국과 대만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위협하는 홍색공급망이 구축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색공급망의 형성을 자본 형성 및 기술 축적 단계, 산업·기술 고도화 단계, 본격적인 추격 및 추월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중국은 각 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 수입대체화 및 현지 기업 육성 등을 통해 홍색공급망을 구축하였다.

1.1 자본 형성 및 기술 축적 단계: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논의는 투자본국, 투자유치국, 다국적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자유주의는 다국적기업을 통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 투자유치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조주의의 종속이론에 찬성하는 이들은 다국적기업을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초래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다국적기업이 핵심 기술을 투자본국에 남겨놓고 쇠퇴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자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종속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가 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중상주의자들은 상호의존 관계 강화가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성,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주축이 되어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강력한 정부 정책과 지속적인 시장 개입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한때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다국적기업에 개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사례는 구조주의에서 주장하는 착취와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상주의의 경우,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그 외의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서술한 국제정치 이론 외에 안행형 모델도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론하였다. 이 모델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주장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국의 쇠퇴산업을 순차적으로 동아시아 주변국에 이전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안행형 모델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동아시아에 미친 긍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안행형 모델의 구성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술 종속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려던 일본의 의도는 지금까지 비판 받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본국인 한국과 대만,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인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포하고 세계를 향해 대외개방의 문을 열었다. 1979년 처음 지정된 경제특구(经济特区)는 활발한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시장경제 강화 및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기서는 수많은 다국적기업들 중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국의 중국 진출은 1983년 단독 진출한 무역회사를 시작으로 19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59개 기업이 진출하였다[54].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매년 3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이른 1988년부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6년 기준 4,700개 이상[55]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각각 47.5억 달러, 36.2억 달러를 기록했고 다년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1> 참조)

---

[54] 유다형. 2016.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한중 Zine 최신 중국 동향』 Vol.172.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p. 4.

[55]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上市櫃公司赴中國大陸投資事業名錄(1991-2016)”. https://www.moeaic.gov.tw/news.view?do=data&id=977&lang=ch&type=business_ann (검색일: 2017.06. 15).

<표1> 2013~2017 국가별 대중국 외자 투자 순위

(단위: 억 달러)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홍콩(783)	홍콩(857.4)	홍콩(926.7)	홍콩(871.8)
2	싱가포르(73.3)	싱가포르(59.3)	싱가포르(69.7)	싱가포르(61.8)
3	일본(70.6)	대만(51.8)	대만(44.1)	**한국(47.5)**
4	대만(52.5)	일본(43.3)	한국(40.4)	미국(38.3)
5	미국(33.5)	한국(39.7)	일본(32.1)	**대만(36.2)**
6	한국(30.6)	미국(26.7)	미국(25.9)	마카오(34.8)
7	독일(30)	독일(20.7)	독일(15.6)	일본(31.1)
8	네덜란드(12.8)	영국(13.5)	프랑스(12.2)	독일(27.1)
9	영국(10.4)	프랑스(7.1)	영국(10.8)	영국(22.1)
10	프랑스(7.6)	네덜란드(6.4)	마카오(8.9)	룩셈부르크(14)

*출처: 오광진. 2017. "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1233.html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한국, 대만 기업이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은 몇 가지 측면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사회 총수요와 자본 형성을 자극함으로서 중국 국내 생산에 기여하였다. 셋째, 중국의 노동력 창출 효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넷째, 중국의 산업·기술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국의 제조 가공 기술, 경영·관리 등 노하우를 비롯한 산업·기술이 중국에 이전되는 통로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중국 수출입 무역에 대한 영향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래 중국의 수출은 비약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주된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당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한국과 대만 기업이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해외 다국적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고 중국은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각각 63.9%, 96.3%[56]에 육박할 정도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한국, 대만 등 해외 다국적기업의 투자로 중국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부문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1.2 산업·기술 고도화 단계: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Gilphin(1991)에 따르면 정부의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은 국제적 전략 환경을 당사국과 독과점적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의 시도로 해석된다[57]. 즉 국가는 보조금 지원, 특정 산업 보호, 독과점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선점하고 더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의 홍색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산업정책은 이러한 주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계획경제로 인해 발생된 각 산업 분야의 과잉생산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위주로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다[58]. 이러한 산업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기조하에 개별적으로 수립된다. 중국 정부는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해 특정 과제 또는 산업을 지원, 육성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그중 '제12차 5개년

---

[56] 김윤희. 2017. "[한중 수교 25 주년①] 무역통계로 보는 한중 경제."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60549. (검색일: 2017. 09. 01).
[57]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 인간사랑. p. 291.
[58] 박동수. 2016. 『중국경제』. 서울: 도서출판도남. p. 112.

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약칭 '12·5 규획')'과 '제13차 5개년 규획(13·5 규획)'에서 홍색공급망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우선'12·5 규획'에서는 내수시장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조화로운 사회건설, 개혁개방의 심화 등 5개의 정책기조를 명시하였다. 이 규획의 산업 부문의 세부 발전 계획에서는 전통산업의 고도화, 과잉생산설 문제 완화,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등을 강조하면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七大战略性新兴产业)'을 제시하였다. 7대 전략적 산업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된다. 그 중 차세대정보기술 산업 부문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고 오늘날 한국과 대만의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ICT 산업에서 도약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13·5 규획'은 앞의 '12·5 규획'에서 제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12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정책인데 이는 산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동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이 규획을 통해 제조업의 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 과거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축소 정책,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무역 확대 및 경제발전을 추구하던 중국 정부는 무역 구조 조정을 위해 1999년부터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금지·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관세 면제 폐지 또는 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의 방식으로 가공무역 품목을 제한·관리해 왔다. 이는 환경 오염 유발, 에너지 과소비 및 저부가가치의 단순 가공무역 부문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2008년까지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중국의 인건비 상승, 개발도상국의 가공무역 발전 등의 영향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해외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급격히 이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완화하였다. 해관총서는 2008년 가공기업의 은행 보장금 대장제도를 완화한 데 이어 2009년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가공무역의 금지·제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갱신(추가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금지·제한 품목 발표를 마지막으로 현재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은 각각 1,862개와 451개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가공에 머무르는 내료가공무역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가공무역의 혁신 및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16년 1월 국무원은 '가공무역 혁신발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加工贸易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공포하였다(<표2> 참조). 해당 의견은 글로벌 분업구조의 조정과 '중국제조 2025'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의 기존 비교우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 공급사슬의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배치의 최적화(동부·중서부의 균형 발전 등) 및 성장 동력의 전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견이 공포된 데 이어 각 지방정부도 해당 의견에 기초한 실시 의견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중국의 가공무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16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의 안정 및 호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外贸回稳向好的若干意见)'을 발표하면서 가공무역 발전 정책을 한층 보완하고 중서부 지역으로 가공무역을 이전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의 일부 산업은 중서부 지역으로 적극 이전될 전망이며, 동부 연해 지역의 가공무역은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가공무역 혁신 발전에 대한 의견의 주요 내용

주요 임무	세부 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내 가공무역의 위상 제고	산업 체인의 분업과 협력 강화, 산업융합 고도화 추진, 기업 혁신 능력 증강
연해 지역의 시범 및 견인 역할 발휘 산업구조전환. 고도화촉진	전통적 우위 산업(노동집약형 산업)의 안정화, 선진 제조업과 신흥산업의 대대적 발전, 생산적 서비스업 발전 지원, 연해 지역의 시범 및견인 역할 발휘
내륙·국경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 지원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가공무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진, 가공무역의 산업 이전 협력 메커니즘 건립, 단계별 중점 승계 지역 발전 지원, 단계적인 이전 정책 마련
기업의 국제 생산능력 협력 유도 국내외 시장 및 자본 활용	가공무역의 대외 협력 계획 수립, 가공무역의 국제협력 메커완비 , 일대일로(一带一路) 국가와 산업 협력 심화, 중국-아프리카의 공업화 협력 수준 제고
관리체제 개혁 및 혁신으로 발전 원동력 강화	가공무역의 행정심사개혁 심화, 가공무역의 신 관리체계 수립, 감독·관리 방식의 최적화, 국내 판매 편리화,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의 통합·최적화
정책조치정비및발전환경개선	재정 지원 확대,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보장제도 보완, 법치 환경 최적화, 공평한 외부환경 조성

*출처: 박가영. 2017. “한·중 가공무역의 구조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세종: 산업연구원. p. 48에서 재인용

중국은 자체 능력 혁신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과 대만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중국은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및 소재의 자급률을 40%까지 올리고 2025년까지 70%로 제고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만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중국, 한국, 대만의 기존 국제분업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점차 좁아지게 될 것이며, 소재·부품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중국은 향후 30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2015년-2025년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개선하고 핵심 경쟁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노동생산성을 한 단계 제고시키고 IT와 제조업 융합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을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2025년-2035년으로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제고하고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35년-2049년으로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세계 제조업 제1강국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있다.(<표3> 참조)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표3> '중국제조 2025' 주요 지표

	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혁신역량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0.88	0.95	1.26	1.68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체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수(건)	0.36	0.44	0.7	1.1
질적성과	제조업 품질 경쟁력 지수	83.1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제고	-	-	2015년 대비 2.0% 증가	2015년 대비 4.0% 증가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	-	-	7.5	6.5
IT제조업 융합	인터넷 보급률(%)	37	50	70	82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52	58	72	84
	핵심공정 CNC 비중(%)	27	33	50	64

*출처: 강지연. 2015. “「중국제조 2025」 전략 -2049년 제조업 세계 최강을 겨냥한 그랜드플랜-.” 『KIET 산업경제』. 세종: 산업연구원. p. 65에서 재인용

이처럼 중국은 끊임없는 정부 정책을 통해 과거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해 왔다.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여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만은 중국이 추구하는 산업구조와 생산 주력 품목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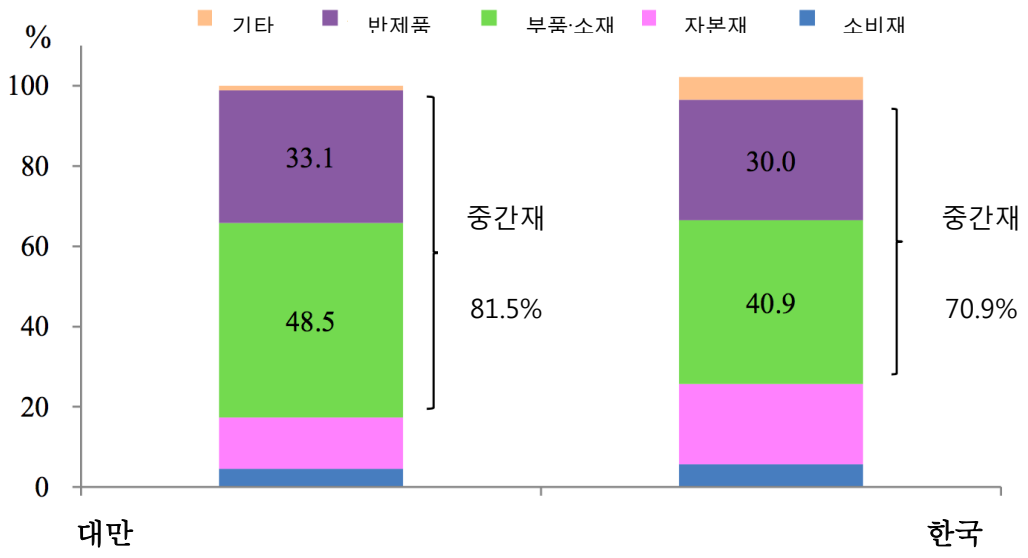
1.3 본격적인 추격 및 추월 단계: 수입대체화 및 현지 기업 육성

안행형 모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노동 비용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노동집약형 제품의 가공 생산에 주력한다. 초반에는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필요한 자본, 기술, 자본재, 원자재, 중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으로 지속되면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자본재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 역시 끊임없는 산업 고도화를 통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 중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를 추진하였고 201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은 '완제품 수입→완제품 대체 및 부품·소재 수입→부품·소재 수입대체'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비중은 각각 70.9%, 81.5%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X>는 이러한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 중국의 중간재 수입 증가율은 30.8%를 차지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5.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대체에 기인한 것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주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및 <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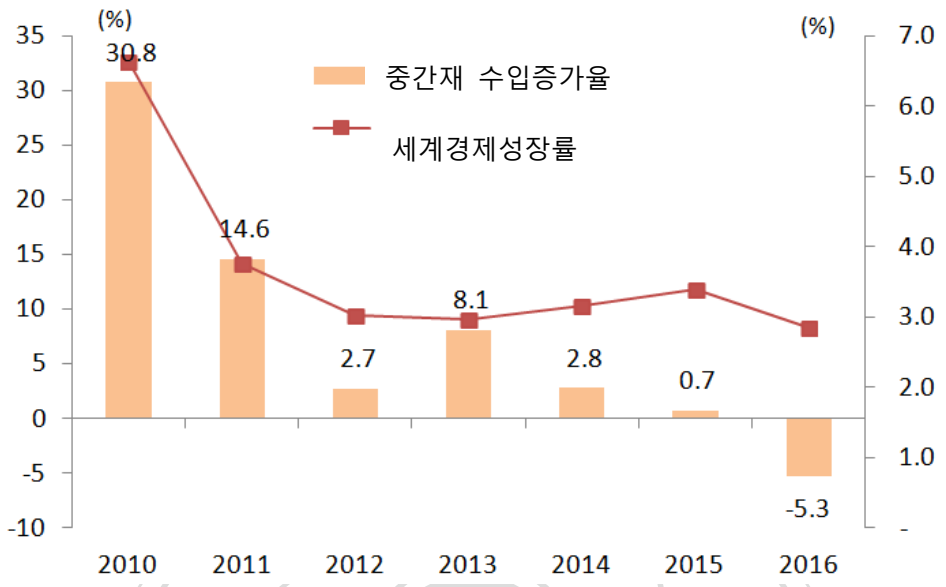
國立政治大學

<그림2> 2016년 대만과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비중



*출처: 中央銀行. 2017. "中央行理監事會後記者會參考資料."
https://www.cbc.gov.tw/public/Attachment/7122716544171.pdf p.23 에서 재인용

<그림3> 중국의 중간재 수입 증가율 추이



*출처: 오세진. 양서형. 2017. "중국의 산업구조개혁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43호. 서울: KDB산업은행. p. 37에서 재인용

또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AV 기기의 수입대체화를 시작으로 1999년 이후 컴퓨터 산업, 2004년 이후 통신기기 산업의 수입대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에서는 이미 수입대체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산업기계 등 첨단산업에서까지 수입대체를 단행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 또한 자국 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자국 기업 비중은 2005년 41.7%에서 2016년 56.2%로 상승하여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특히 자국 부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공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도 2007년 59.7%에서 2016년 69.4%[59]로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R&D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현지

[59] 이치훈. 이상원. 이지현. 2017. "중국 산업고도화의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영향".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 p.4. (검색일: 2017. 11. 08).

기업들의 위상과 자체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철(2017)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은 과거 소형차, 상용차를 주로 생산했으나 현재 중형세단, SUV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철강 기업들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였다. 조선 분야는 국영 중·대형업체 및 민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일반 기계 분야에서도 현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가전제품 기업과 스마트폰 기업들은 중저가 잇따라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경우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만 다수 현지 기업들이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60].

2. 홍색공급망으로 인한 중국, 한국,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변화

국제무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 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주도국 역할 선점 경쟁이 지속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상품 기획, 디자인, 생산자원의 글로벌 조달, 마케팅과 같은 핵심 역량, 즉 고부가가치 영역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력이 높은 기술·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 미국 애플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와 이윤을 획득하고 있고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느 부문에 위치하고 어떠한 생산활동을 담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60] 조철. 2017.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KIET 산업경제. 세종: 산업연구원. pp. 9-11.

있다. 한편 과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조립 생산에만 참여하던 중국 기업들은 최근 자체 브랜드 개발, 자체 생산 등 홍색공급망을 통해 가치사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2014)는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를 기본 네 가지 단계와 별도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가치사슬 진입 단계로 제품의 제조만을 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달, 유통까지 가능해지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각각 제품 디자인과 제품 브랜드화로 더 높은 가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두 가지 단계는 제품 개선 및 공정 개선 단계로 이 두 단계까지 도달하면 R&D,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해진다[61].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이러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왔다. 과거 조립, 제조를 전담하던 중국 기업들은 현재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체 스마트폰 가치사슬을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대만,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와 참여도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가 또는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소비자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까운 산업이 가치사슬의 하단을 차지하는 전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소비자로부터 거리가 먼 산업은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하는 후방산업(upstream industry)으로 나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 수록 타국과와의 생산 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과 대만은 높은 수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로 양평섭(2016)에 따르면

[61] Jean-Paul, Rodrigue. Fadi, Farra. Gary, Gereffi. Jun, Ni. João Carlos, Ferraz. Ludovico, Alcorta. 2014. “The Future of Manufacturing: Driving Capabilities, Enabling Investments”. World Economic Forum . Vienna: UNIDO. p. 11.

2011년을 기준으로 대만은 전세계 61개 국가 중 2위를, 한국은 6위를 차지하였다[62].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은 한국과 대만의 국내 경제 및 산업의 성장을 추동할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부가가치의 국제적 이동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은 2008년부터 제조업 부문의 최종수요에서 미국을 제치고 부가가치 창출 1위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간재 수출을 통해 세계 총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조업 전방참여도에서는 2008년-2011년 사이 11.6%에서 12.4%로 증가하는 등 세계 총수출에서 중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투입 비중이 증가하였다.

3. 홍색공급망의 목적

홍색공급망은 중국이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주목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고 오늘날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국가의 위상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는 국력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력를 획득하려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홍색공급망은 자국의 경제. 산업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반면 한국과 대만의 입장에서 홍색공급망은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따른 민감성과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62] 양평섭. 2016.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한-대만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

Ⅲ. 중국 홍색공급망의 영향

1. 홍색공급망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1.1 전반적인 영향

지난 20년간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에는 전세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최종 조립기지가 형성되었다. 한국, 대만 등 선발 산업국들은 이 생산기지에서 사용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70% 이상이, 대만의 대중국 수출 중 80% 이상이 중간재이며, 그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63]. 이러한 국제분업 구조의 위상과 형태가 변화하면 한국과 대만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야기하게 된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대체 능력의 향상과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국제분업 구조의 변화, 즉 중국이 그동안 대부분 수입해 왔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과 대만의 주력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이 중국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과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수출총액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평균 22.7%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 평균 증가율은 0.83%

[63] 지만수. 201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KIF 연구보고서 Vol.2017 No.7.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p.1.

수준에 머물고 있다[64].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적이 있었으나 단기간에 회복된 반면, 최근에는 수출 둔화 및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2009년 -17.6%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는 -1.1%를 기록하여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과 대만의 중국 시장점유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2013년 9.4%, 2014년 9.7%, 2015년 10.4%, 2016년 10.0%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2017년 상반기 9.4%로 하락하면서 일본에 잠시 자리를 내어 주었다. 대만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2013년 8.0%, 2014년 7.8%, 2015년 8.5%, 2016년 8.8%를 기록하면서 일본과 1~2위를 다투었으나 2017년 7.8%로 내려앉았다[65]. 대만은 중국과 ECF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대만이 상실한 시장점유율은 고스란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과거 중국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가공무역은 중국 정부의 억제 정책 영향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저가 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과거 단순 가공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주문 접수부터 생산을 위한 원자재, 중간재까지 현지에서 조달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과정까지 도맡아 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경제 개발과 산업 구조 고도화 등에 따라 자본재 및 중간재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의 비중이 2016년 1/4분기에 각각 37.2%, 30.9% 및 31% 등으로 비슷한 데 반해,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중간재가 50%를 차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64] 지만수. 201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KIF 연구보고서 Vol.2017 No.7.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p.9.

[65] 심윤섭. 2017. "2017 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무역 평가 및 향후 전망." KITA Market Report. 베이징: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p.7.

이처럼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 및 중간재 자급률 상승 현상은 한국과 대만의 주요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기계, 평판 디스플레이 등과 대만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인 광학기기 부품,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쑨밍더(孫明德, 2015)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홍색공급망에 대체된 과거형 산업이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체 중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향후 대체될 위기에 놓인 산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66].

1.2 주요 산업별 영향

(1) 디스플레이 산업

중국은 근래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주목 받으면서 해당 산업의 세계 1위인 한국과 그 뒤를 잇고 있는 대만의 위상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비록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중급 이하의 보급형 제품은 자체 생산 제품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즉 수입 중간재 대신 자국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과거 한국, 대만 등에 의존하던 국제분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홍색공급망이 형성되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 변화를 'LCD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6년 대만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한국도 추월할 전망이다[67].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3년 정부 물품 조달시 자국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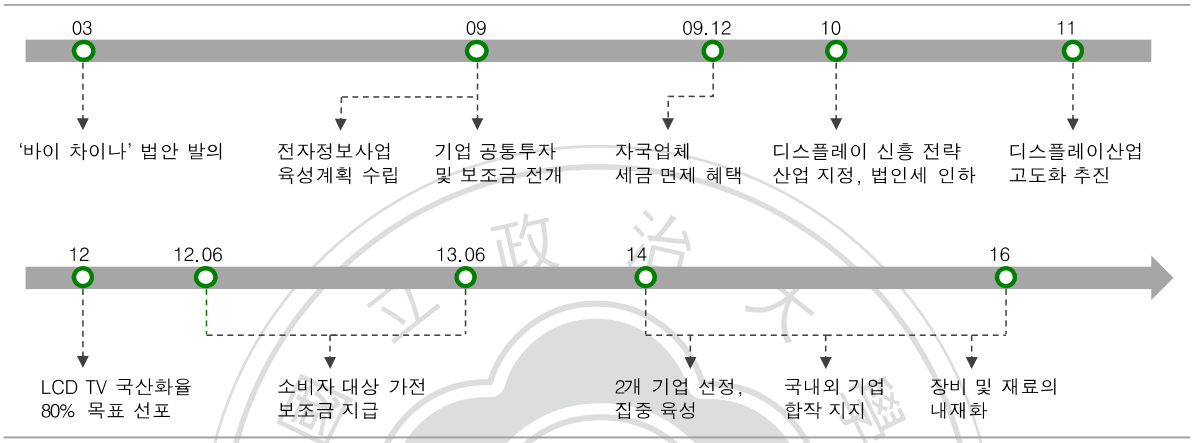
---

[66] 孫明德. 2015. "從中國開始所引發全球價值鏈的變遷與影響." 글로벌 경제와 한-대만 산업협력포럼. 타이베이. 10 월. pp. 14-17.

[67] 서동혁. 2017.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고속성장과 시사점." 산업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p.12.

‘바이 차이나(Buy China)’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9년 ‘전자정보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 2012년 ‘제12차 5개년 계획’ 등 강력한 지원 정책 및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그림4> 참조)

<그림4> 중국 디스플레이산업 지원 정책



*출처: 이원식. 김민경. 2017. “디스플레이산업 비중확대.” INDUSTRY REPORT. 서울: 신영증권. p.7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대만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한국이 과거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산업에 진입했듯이 중국 또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통해 산업에 진출한 것이다. 그 이후 자체 기술 개발 및 양산성 확보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이 지원 정책이다. 그 중 ‘2014-2016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행동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4-2016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행동계획’ 주요 내용

발전 목표	- 면적기준 출하량 세계 2위 -전세계점유율20%이상 - 산업 총 규모 3,000억 위안 이상

역량 강화	- LTPS/옥사이드 TFT LCD 양산 및 생산량 연 500만m² - AMOLED 양산 및 생산량 연 40만m²로 확대
질적 성장	- 2개 기업 선정, 집중 육성 - 판매액 300억 위안 초과 - 생산규모 세계 6위권 내 진입
국제협력 강화	- 국내기업 합병, 해외기업 지분확보 등 다양한 협력 지원 - 국내외기업 협력 연구센터 건립 등 공동기술연구 지원 - 국외 설비 및 소재 관련 기업의 중국 내 투자건설 지원 - 해외 우수인재의 중국 내 창업 지원
장비·소재 강화	- 장비종류의 40% 국산화 - 소재종류의 80% 국산화 - 중소형 LCD 제조소재의 60% 국산화 - 대형 LCD 및 AMOLED 제조 소재의 30% 국산화

*출처: 오종석. 2017.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따른 시사점." CSF 이슈분석 2017-8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에서 재인용

이 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조금 지원이다. 각 지방정부들은 LCD 관련 자국기업에 R&D 및 설비 구매 명목으로 지분을 투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BOE의 경우, 베이징(北京)공장 50%, 허페이(合肥)공장 58%가 정부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SOT의 선전(深圳)공장은 정부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유리기판 제조업체 Tunghsu에 약 6,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Slichem에 약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BOE는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1위는 LG 디스플레이, 3위는 대만 AUO) 둘째, 세제 혜택이다. LCD 설비의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LCD 관련 설비를 구입하는 기업에 약 12%의 환급 혜택을 부여했으며, LCD 패널 제조를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법인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관련 설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였다. 셋째, 수입 관세율 인상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해 LCD 및 관련 핵심부품 수입의 관세율을 인상했는데 32인치 이상의 LCD 패널의 관세는 3%에서 5%로, 6G 이하 LCD 유리기판 관세는 4%에서 6%로, BLU용 편광판 관세는 6%에서 8%로, ITO 필름 관세는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넷째,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8세대 이상의 LCD 신규 투자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2016년까지 OLED와 같은 최신 공정 기술에 집중 투자해 디스플레이 면적 기준 출하량 세계 2위, 세계 점유율 20% 이상, 산업 총규모 3,000억 위안 이상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였다[68].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홍색공급망이 구축되었으며, 해당 산업의 선두주자인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기술 인력 확보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주로 한국, 대만의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공급과잉은 세계적인 가격 하락을 비롯해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업들의 납품 단가 상승,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 능력 격차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15년 중장기 제조업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부품 및 중간재의 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중국 기업이 OLED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러한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기인한다. 한 예로 BOE는 10.5 세대를 끝으로 더이상 LCD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최근 465억 위안을 투자하여 6세대 플렉시블 OLED 라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고 Visionox는 2017년부터 5.5 세대 OLED 라인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한편 6세대 OLED 라인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를

[68] 이상 통계 자료는 오종석. 2017.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따른 시사점." CSF 이슈분석 2017-8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 에서 재인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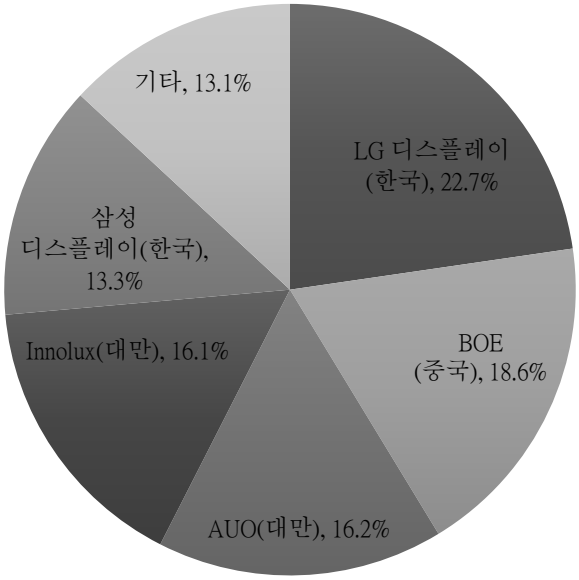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 중 BO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E는 1993년 4월 베이징에서 설립되었고 디스플레이, 스마트 시스템, 헬스케어 서비스가 3대 사업 분야이며,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부문이 BOE를 대표하는 주력 사업이다. 지난 20여년간 BOE는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 선두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알려진 BOE는 200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9위에서 2016년 2위로 도약하였다. 또한 BOE는 OLED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2017년 중소형과 대형 OLED 부문의 세계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2019년 세계 최대 OLED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BOE는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17년 상반기 R&D에만 31억 6,900만 위안을 투입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63% 늘어난 수치이다. 그 외에도 BOE가 2016년 한 해 신청한 신규 특허는 7,570건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같은 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발표 특허 신청 순위에서 세계 8위에 등극하였다[69]. 특허 신청 건수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평균적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BOE의 이러한 성과는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은 아직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5>참조) 그러나 향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홍색공급망이 더욱 확장된다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에 추격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을 넘어서거나 중국에 편승할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되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69] 홍성현. 2017. "삼성 LG 에 도전장. 디스플레이 굴기 선도하는 BOE."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08000250 (검색일: 2017. 12. 18).

한발 앞선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5> 201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추이



*출처: 김현우. 2017. "투자 발묶인 LG디스플레이, 중국에 1위 뺏겼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64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 반도체 산업

반도체는 최후방에 위치한 소재산업이며 전방산업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거의 모든 생활가전 및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핵심부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후방산업이다. 농경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재가 곡식이었고 산업혁명 이후 철이 중요한 소재였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재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해당 분야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 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로직 IC를 지능형 반도체로 구분된다. 한편 반도체 산업의 공급사슬 측면에서 보면 설계, 제조, 패키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품 설계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분야를 자체 운영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IDM)', 반도체 제조 과정만 전담하는 '파운드리 기업(Foundry)', 그리고 설계 기술만을 가진 '팹리스 기업(Fabless)'으로 나눌 수 있다.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위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수요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 3,859억 위안으로 세계 수요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6% 성장하였다[70]. 이를 통해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대만이다. 2016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품의 63%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대만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홍색공급망은 한국과 대만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규모는 전세계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팹리스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종합 반도체 기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반도체를 국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잇달아 제정해 왔다. 2011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산업 발전에 관한 심화 정책(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70] 김동수. 2017. "[산업분석] 중국의 반도체산업."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679&state=view&tab=list&idx=53170&recom=2614&ord=0. p. 12 (검색일: 2017. 05. 05).

요강(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을 발표한 데 이어 2014년 9월 반도체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하였다. (<표5> 및 <표6> 참조)

<표5>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의 반도체 산업 분야별 목표

분야	내용
설계	- 스마트기기, 인터넷, 통신 분야 반도체 개발에 주력 - 반도체 설계 기업 간 M&A, 업계 구조조정 실시 - IoT, 빅데이터 등 신성장 분야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
제조	- 투자・융자 장애요인 제거 및 첨단 생산라인 구축 - 32/28nm 공정 생산라인 구축및양산체제확보 - Analog, MEMS 등 특수 제품 생산라인 확대
후공정	-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기업 간 M&A 추진으로 산업 집중도 제고 - WLP, TSV, 3D 패키징 등 중・고급 물량 비중을 확대
장비 및 소재	- 전공정 장비 개발 및 국산화, 대형사이즈 웨이퍼(300mm, 450mm) 개발 등

*출처: 김광섭. 2016. "중국 반도체 굴기(倔起)의 동향 및 대응전략." Weekly KDB Report. KDB산업은행. p. 4에서 재인용

<표6>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의 핵심 지원 방안

방안	내용
조직 리더십 강화	-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직 신설 -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하여 연구 진행 및 의견 제시
투자기금 설립	- 민·관 공동출자 중앙기금 설립 - 지자체별 개별 기금 설립 장려
금융지원 강화	-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 및 지원 강화
세수지원	-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에 대해 소득세 우대 - 반도체 인수합병 관련 기업의 소득세, 영업세 등 감면 - 핵심 장비, 부품, 원자재 등에 대한 면세 수입 정책

대외개방 확대	- 해외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R&D, 공장 설립 장려 - 양안 경제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술 및 산업 협력 추진

*출처: 김광섭. 2016. “중국 반도체 굴기(倔起)의 동향 및 대응전략.” Weekly KDB Report. 서울: KDB산업은행. p. 4에서 재인용

이에 더해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고성능 반도체를 처음으로 중점 산업에 포함시키고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의 고도화, 장비 및 소재 분야의 고급화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세계 반도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반도체의 국산화를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12·5규획’ 기간 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성공했던 전략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5규획’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고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해외 기업에 대한 공격적 인수·합병(M&A)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Tsinghua Unigroup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각각 2013년, 2014년 반도체 설계 기업인 Spreadtrum과 RDA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대만의 패키징 기업 Powertech의 지분의 25%를 인수했고, 대만 SPIL과 ChipMOS 등 반도체 테스트 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제조 분야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도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세계 6위 기업인 Micron에 인수를 제안하였고 2016년 미국 Western Digital 인수에 성공한 바 있다. 그 후에도 미국 Sandisk 인수, SK하이닉스 지분 인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Tsinghua Unigroup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라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눈을 돌려 2016년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XMC를 인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를 설립하였다.

둘째,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력 영입이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앞서 제시했던 인수·합병 외에 기술 격차를 줄이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단기간에 습득기 위한 방법으로 Intel, SK 하이닉스, 삼성, TSMC 등 중국에 진출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언어권에 속한 대만 기업에서 주로 기술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데 최근 대만 TSMC의 전 엔지니어가 파운드리 공정의 핵심 기술 정보와 자료를 소지하고 중국 HLMC로 이직하려다 검거 및 기소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만 UMC 출신의 R&D 인력 50여 명이 중국 HLMC에 영입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핵심 인력 영입 시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연봉의 3~5배 지급, 주택 및 차량 제공, 자녀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직을 선택하는 인재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일련의 정부 정책 및 현지 기업들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 두 곳이 세계 2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2개 기업이 세계 10위권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도 2015년 736개에서 2016년 1,362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업들의 연매출은 약 177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1%를 차지하며, 미국과 대만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71]. 이러한 추세라면 2019년 이후 전세계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록 중국이 한국 또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IT 제품엔 다양한 가격과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 탑재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일부를 중국 기업에 내주게 될

[71] 이나리. 2017. “중국, 반도체 사업 정부 투자로 '자신만만' 메모리로 영역 확대 ②.”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54 (검색일: 2017. 12. 08).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관련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공급사슬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의 인수·합병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제를 비롯해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향후 중국 반도체 산업 홍색공급망에서의 위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3) 스마트폰 산업

과거의 중국은 전형적인 ODM 국가로 타국의 주문을 받아 제품 생산을 위탁받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였다. 지금은 R&D에 대거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와 디자인,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산업 홍색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과거 Nokia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며 제조 역량을 축적해 왔다. K-Touch와 Coolpad 등 중국의 전통 휴대폰 기업들의 경우 산자이(山寨, 중국산 모조품) 업체로 출발했으나 글로벌 제품을 모방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현재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 Huawei, ZTE, Lenovo 등 주요 스마트폰 기업들은 과거 통신장비 또는 PC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쟁력과 노하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AP, 메모리, 카메라 등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다. 갤럭시S8 모델을 예로 들면 부품 원가가 가장 높은 것은 디스플레이이며, 다음은 모바일 중앙처리장치 AP(Application Processor)라 불리는 반도체 칩이다. 중국이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적극 육성한 이 두 산업의 제품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체 기술력 및 품질 향상 외에도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7> 참조)

<표7> 스마트폰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 동향

발표년도	정책	이동통신 및 단말기 분야
2006	정보산업 과학기술 발전 11.5 규획	차세대 네트워크, 광대역무선이동통신, 지능단말,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한 연구 가속화
2009	3G 이동통신업무 규범 (시범시행)	3 세대 이동통신업무의 통신 품질 지표, 3 세대 이동통신업무의 서비스 품질 지표 규범화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	통신산업(3G,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 네트워크 구축 등), 전자부품소재(디스플레이 등), 컬러 TV 등 중점 육성
2010	12.5 발전규획과 7 대 신흥전략 산업	12.5 기간 동안 3G 기술과 TD 기술 발전을 통한 통신 및 연관 산업 발전
2011	산업의 핵심기반 기술 발전지침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핵심 기술: OS, 3G 멀티모드기술, 고성 능 멀티코어, GPS, 모바일 결제 및 신형 터치 기술
	공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규획 (2011-2015)	TD-SCDMA 고급제품 지원, TD-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설비와 시스템 R&D 및 산업화, TD-LTE 단말기의 기저대역, RF 칩, 응용플랫폼 등 관련 산업 발전 촉진
2012	전자 정보 제조업 12.5 발전 규획	전자기초소재 및 중요 부속품 12.5 규획, 전자전용설비 12.5 규획, D-TV 및 가전산업 12.5 규획 등 시행
	IMT-2020 프로모션그룹 결성	중국정부 주도의 5 세대 이동통신분야 연구
	12.5 국가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무선이동통신, TD-LTE 및 4G 설비와 단말, IoT, 클라우드, 첨단통합칩, 센서, SW,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전략 명시
	사물인터넷 12.5 발전규획	2015 년까지 총 50 억 위안을 투자하여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핵심표준 제정, 산업체인을 구축
2013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지역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균형발전, 브로드밴드 네크워 크 개선 및 고도화, 응용수준 제고, 산업사슬 완비 등

*출처: 김종기. 2014. “중국 스마트폰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망과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서울 : 산업연구원. p. 11에서 재인용

‘12.5 규획’이 추진되는 기간(2011-2015) 동안 중국 최대 스마트폰 기업 Huawei는 중국 최초로 고급 휴대폰 칩의 생산라인을 건설했고 최근 Motorola를 인수한 Lenovo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R&D를 비롯해 생산을 위한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자체 업그레이드로 형성된 스마트폰 홍색공급망이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세 국가 모두 세계 스마트폰 공급사슬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표8>참조)

<표8> 한국, 대만,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공급사슬 참여 기업

분야	한국기업	대만기업	중국기업
스마트폰	삼성, LG	HTC, Asus	Huawei, Xiaomi, OPPO, vivo
메모리	삼성, SK 하이닉스	Nanya, Winbond	-
AP	삼성, LG	TSMC, MediaTek	HiSilicon, Spreadtrum, Leadcore
FAB 공정	삼성, SK 하이닉스	TSMC,PSC	SMIC, UAES, HLMC
패널	삼성, LG	Foxconn, AUO	BOE, TIANMA
배터리	삼성 SDI, LG 화학	Simplo	ATL, Desay, Lishen, BYD

*출처: 언론 기사를 조합하여 저자가 작성

2000년 무렵만 해도 중국에는 이러한 공급사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은 Motorola, Ericsson, Nokia 등 외국 브랜드를 대신해 해외에서 휴대전화 메인보드를 수입한 후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였다. 학습과 모방을 반복하던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녹음기, 라디오, MP3, MP4 등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스마트폰 공급사슬이 형성된 것이다. 아직까지 메모리, AP 등 핵심 기술에서는 한국과 대만보다 부족한 상태이지만 HiSilicon, Spreadtrum 등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Huawei에 이어 Xiaomi가 AP 독자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분야에서도 한국,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점차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DC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부터 5위는 Apple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현지 브랜드가 차지하였다[72]. 특히 OPPO는 16.8%을 기록하며 2015년 1위였던 Huawei(16.4%)를 넘어섰다. 또한 2016년 중국 내 스마트폰 출고량은 전년도 4.30억만에서 8.7% 성장한 4.67억만 대에 달해 중국산 스마트폰의 출고량은 삼성과 Apple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며, 중국 시장점유율이 곧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폰 홍색공급망은 해외 수출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를 차지한 인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중국 ODM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이렇듯 신흥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홍색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은 기술과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이 선도하고 있는 AP,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약점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확대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72] 안희권. 2017. “애플, 中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첫 감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05339&g_menu=020600&rrf=nv (검색일: 2017. 05. 05).

국가자치권의 취약성을 유발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한국과 대만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다[73]. 이 장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영향에 취약해진 한국과 대만이 어떠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향후 홍색공급망을 통해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 미칠 정치적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국가 간의 경제활동은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무역과 힘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학자인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에 따르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군사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외교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74]. 이에 더불어 중상주의자들은 무역 참여국 모두가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절대적 크기보다 상대적 크기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무역 이익의 비대칭으로 국가 간에는 힘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국제정치에서 자치권의 취약성 및 종속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그간 상호 보완적인 국제분업 구조를 구축해 왔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당시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해 왔고 중국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산업 고도화를 포함한 홍색공급망이 형성되면서 과거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의 전환을 맞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많은

---

[73] 조윤기. 김운겸. 조은선. 2015. “대만·한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 간 무역의 정치적 외부성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p. 46.

[74] 김상기. 2016.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2 권 제 4 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12.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4년 중국이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역시 2007년 22.1%에서 2016년 63.9%까지 증가했고 특히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상호보완적이던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이라는 분업 구조가 경쟁 관계로 전환된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정치적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한국이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한 사례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발표 이래 중국 내 한류 문화상품 제한령, 중국 내 한국 관광 자제 분위기 조성, 중국 매장 판매대에서의 한국 상품 철수 및 불매 등 경제 보복을 시작하였다. 현재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나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2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각자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양안관계(兩岸關係)'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각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대만을 흡수 통일할 대상으로 보고 대만은 중국 본토를 과거 중화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치와 비정치, 정부와 민간 부문을 철저히 분리해 교류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각각 반관반민 성격의 기관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부터 인적·물적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갔으며, 교류 협력의 제도화와 정지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으로 특히 2001년 '소삼통(小三通)', 2008년 '삼통(三通)', 2009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등을 통해 양안 경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제조업 산업 직접투자는 대만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의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안 간의 경제협력은 대만의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만인들은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 관계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주장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대만의 대중국 의존에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한다. 대만 학자들은 중상주의의 관점에 입각해 중국이 통일이라는 전략적 동기에 의해 양안 경제관계를 주도적으로 확대했고 이는 대만의 일방적인 의존을 야기해 실업률 증가 및 경제 성장 둔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대만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학자들은 양안 경제 관계 확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유주의 적 견해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양안 경제교류 심화에 대한 대만 사회 내의 비판적 시각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자는 친중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대만에는 정체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이 대만의 자율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즉 양안 경제 관계의 확대가 소수의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일반인들은 저임금, 고실업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의 산물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2013년 체결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고조되어 학생들이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한국의 국회에 상응하는 기관)을 점령하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잉주 정부는 해당 협정이 중국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 제한을 없앰으로써 대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 주장한 반면 이를 통해 대만의 금융, 보험, 공공교통,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어 대만 경제와 기반시설, 금융체제 등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대만의 주권과 경제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대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2016년 대만 총선 및 대선에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民進黨)이 압승을 거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만 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과 탈중국화 추진에 대한 국내적 지지로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은 양안관계 정책 노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뜻의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중국은 1971년 대만을 대신해 UN의 회원국으로 인정 받은 이후부터 대만을 국제기구로부터 퇴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차이 잉원 정부 집권 후 중국이 WHO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봉쇄한 사례와 2016년 말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가여유국은 대만으로의 관광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입국자는 전년동기대비 29.1% 줄은 것으로 파악된다[75].

과거 대만에서 위탁생산을 해왔던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대륙에 투자한 다음 대만산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입하고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방식의 공급사슬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각종 정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75] 윤창용. 이승준. 선성인. 최동환. 하건형. 2017. "중국 사드 보복 영향 파헤치기." Global Sentinel. 서울: 신한금융투자. p. 4.

영역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중간재를 자체 생산, 최종재까지 직접 수출하는 이른바 홍색공급망이 형성되면서 대만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차이잉원 정부는 홍색공급망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가입과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홍색공급망을 통한 정치·외교적 압력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한국과 대만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이 홍색공급망을 어떻게 비경제 분야, 즉 정치·외교 영역에 활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영향

홍색공급망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대만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 주었는데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과 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을 발전시켜 경쟁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되고 있는데 홍색공급망에 편입된 한국과 대만 기업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내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색공급망에서 탈퇴하려는 기업들도 대체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사이로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입장에서 홍색공급망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홍색공급망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대만의 경우, 대부분 홍색공급망을 중국이 대만을 겨냥하고 수립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홍색공급망은 충분히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추후 후속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Ⅳ. 중국 홍색공급망에 대한 대응 방안

1. 한국의 대응방안

홍색공급망은 아직 한국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홍색공급망에 관련한 대응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 중국의 산업고도화, 중국의 수입대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등에 대한 정책적,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이 이미 추진 중이므로 여기서는 한국의 기존 정책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1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2015)는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와 자급률 제고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기존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출확대 기회가 크다고 생각되는 '10대 수출 기회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수출 기회국가에 대해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시장정보 제공, 무역금융 지원 확대, 경제외교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중국 등 기존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유망 소비재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 고, 유통대기업과 연계하여 소비재 마케팅을 강화하며 급성장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하여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정품 인증을 통한 상품 홍보 및 브랜드 제고도 추진한다[76].

한국무역협회(2016)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생산·무역구조 혁신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수요구조가 바뀌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 일본, EU 등 중국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등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에 따른 중간재의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한국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확대(소비재 고급화, 브랜드 전략, 소비패턴 변화 대응, 온라인 수출 등), 중간재 수출 기회 창출(중국 서부지역 진출, 중국의 기술 고도화 대응), 한중 FTA 활용 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7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은 중국이 투자 및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변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제조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동남아 등 신규 시장 개척, 중국의 일대일로에 따른 사업 기회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78].

그 외에도 한국은 2014년부터 IT • 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한국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 중이다[79].

1.2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

[76] 지만수. 201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KIF 연구보고서. 2017-07.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p. 67 에서 재인용.

[77] 박진우. 2016.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2000~2015)." TRADE FOCUS 2016 년 15 호.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78]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2015.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연구보고서 15-10.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69-170.

[79] 이장규 외,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5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 개척, 중국에 앞선 혁신 기술·제품 개발, 중간재 경쟁력 제고, 기술·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초격차와 확장 전략을 통해 자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즉 기술 격차를 확대해 경쟁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전략과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사업 규모가 더 큰 비메모리반도체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2016년 전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분야: 23%, 비메모리 분야: 77%) 한편 최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방대한 인구와 높은 성장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LG그룹은 베트남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의 주력 제품인 OLED 공장, LG전자의 TV 및 스마트폰 공장, LG이노텍의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공장 등이 베트남에 들어서 있다. 반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广州)시 정부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8.5세대 OLED 공장을 설립하였고 SK하이닉스는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대만의 대응방안

2.2 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대만 정부는 자체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2015년 '생산력 4.0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제적 제조업 업그레이드 추세에 따르고 취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동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 간 360억 대만 달러를 투입해 공작기기, 금속가공, 3C, 식품, 의료,

물류, 농업 등 제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6대 목표는 ①우수산업 영역의 스마트 가치사슬 생태 시스템 구축, ②창업 촉진, ③상품·서비스의 국산화 촉진, ④주요기술의 자주능력 배양, ⑤실무 인재 양성, ⑥산업 정책 도구 보충 등이 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을 추진 중이다. 해당 정책은 농업, 비즈니스, 문화, 교육, 무역, 관광 분야에서 ASEAN 회원국, 남아시아 6개국, 호주, 뉴질랜드 간의 연계 강화를 추구하고 동남아 8개국과 새롭게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여 중국 이외의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IT 산업은 대만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인 만큼 '디지털 국가 조성을 통한 경제혁신 9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에는 대만의 글로벌 IT 경쟁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정책 부문을 총괄하는 정무장관직에는 30대의 천재 해커를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단행하였다.

그 외에도 7대 신산업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내수 확대, 현지 산업 내 연계성 강화,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7대 신산업에는 사물인터넷, 녹색에너지(태양광), 바이오테크, 스마트 기계, 방위(항공, 우주), 신농업, 자원 순환 등이 있다.

2.2 대만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대만 기업들은 중국이 필요로 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을

타깃으로 정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 활용하고 있다. 이를 '인서셔닝 전략'이라고 부른다. 또한 세부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고객맞춤형 고부가가치화 핵심 부품소재 기술 확보하고 혁신을 통한 기술력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플사에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Largan Precision의 경우 앞선 기술력과 철저한 보안으로 현재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일부 기업들은 홍색공급망에서 탈퇴하기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합자 공장 설립, 지분 참여 및 교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 UMC는 중국 샤먼정부 및 현지 기업과 합자하여 웨이퍼 공장을 설립한 바 있고 Powerchip은 중국 허페이시와 합자로 반도체 제조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수직, 수평적 통합으로 대응 역량 강화하고 있다. 대만 기업 규모는 중국 기업에 비해 월등히 작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직접 도전하기보다 업계 간 수직 통합 또는 업계 내 수평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Foxconn은 일본의 Sharp를 인수하여 업계 간 수직합병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기술력 확보와 생산효율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패키징 기업 ASE는 업계 3위인 SPIL과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한편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및 투자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홍색공급망의 파급효과 중 중국에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수출 및 투자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인덕터 제조 기업 Chilisin은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에 신규 투자를 결정하였다[80].

그 외에도 대만 기업들은 자체 기술 혁신에 힘쓰고 있는데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Foxconn은 생산라인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80] 유기자. 2016. "「반면교사(反面教師)」 중국'홍색공급망'의 영향 및 사례." KOCHI **자료** 16-005. 서울: KOTRA. pp. 14-15 의 내용을 요약, 재인용

분야에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다. PC 제조사 ASUS도 인공지능, 딥러닝 등 첨단기술 분야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력 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Ⅴ. 결론

과거 동아시아의 분업구조는 일본을 선두로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과 아세안 국가, 베트남, 중국이 뒤따르는 형태였다. 그러나 중국이 홍색공급망을 형성하면서 국가 간의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한국과 대만을 추월하고 더 나아가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활발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시장 경제를 강화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 중 한국과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기술 이전, 관련 인재 육성 등 파급효과를 내며 중국의 산업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중국은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09년 가공무역 금지·제한 조치, '12·5 규획', '13·5 규획', '중국제조 2025'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의 자체 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 대만은 중간재 위주의 수출주도형 국가로 대부분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러한 중간재 수입대체화 전략은 한국과 대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중국은 현지 기업을 육성하여 현재 자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과 대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홍색공급망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에서 그 파급효가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수입 관세율 인상,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등 정책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LCD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2016년 대만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2018년부터는 한국도 추월할 전망이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홍색공급망은 공급과잉을 초래했고 한국과 대만 제품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주요 공급자인

한국과 대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파격적인 조건을 건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한국,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각각 메모리 분야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인 한국과 대만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고도화를 기반으로 발전된 것이 스마트폰 산업이다. 통신장비, PC 등 경쟁력이 높은 연관 IT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축적된 OEM 및 산자이(중국산 모조품) 제조 역량에 힘입어 중저가 모델에서 점차 벗어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핵심부품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중저가폰 제조를 위한 주요부품의 중국 내에서 조달이 대부분 가능해졌고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자국 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홍생공급망은 비단 한국과 대만의 경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이 중국 경제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한국과 대만에 압박을 가해 정치적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각각 63.9%, 96.3%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단행하였고 대만 신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로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있다. 현재 홍색공급망의 명의로 한국 또는 대만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은 없었으나 향후 중국이 홍색공급망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홍색공급망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 받고 있는 영향은 홍색공급망을 형성하면서 파생된 부수적인 산물이다. 대만 언론의 경우 홍색공급망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홍색공급망을 대만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홍색공급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적적인 시각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만의 정부 및 기업들은 이러한 홍색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대체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가공무역 축소, 수입대체화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기업 측면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은 홍색공급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국가로서 대만의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대만은 중국의 제품 국산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요 산업 및 차세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 한-중 FTA, 양안 ECFA 등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참고 자료】

국문 자료

강지연. 2015. “「중국제조 2025」 전략 -2049년 제조업 세계 최강을 겨냥한 그랜드플랜-.” 『KIET 산업경제』. 세종: 산업연구원.

김광섭. 2016. “중국 반도체 굴기(倔起)의 동향 및 대응전략.” Weekly KDB Report. 서울: KDB산업은행.

김동수. 2017. “[산업분석] 중국의 반도체산업.”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679&state=view&tab=list&idx=53170&recom=2614&ord=0.

김상기. 2016.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제4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성순. 최명식. 김인지 . 2016.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2017. “[한중 수교 25주년①] 무역통계로 보는 한중 경제.”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60549.

김종기. 2014. “중국 스마트폰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망과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서울 : 산업연구원.

김종기. 서동혁. 주대영. 최동원. 김재덕. 2014.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연구보고서 2014-734. 서울: 산업연구원.

김진영. 2007.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지역주의에의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김현우. 2017. “투자 발묶인 LG디스플레이, 중국에 1위 뺏겼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64.

Robert, Gilpin 저. 강문구 역. 1991.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 부천: 인간사랑.

박가영. 2017. “한·중 가공무역의 구조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세종: 산업연구원.

박경서. 2001. 『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박동수. 2016. 『중국경제』. 서울: 도서출판도남.

박번순. 2002.『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 :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제주도권』.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_____. 200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SERI 연구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서동혁. 2017.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고속성장과 시사점.” 산업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심윤섭. 2017. “2017 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무역 평가 및 향후 전망.” KITA Market Report. 베이징: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안희권. 2017. “애플, 中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첫 감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05339&g_menu=020600&rrf=nv.

양평섭. 2016.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한-대만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광진. 2017. “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1233.html.

OECD. 2010. “환황해권 초국경적 도시간협력.” OECD 지역정책 보고서. Paris: OECD.

오종석. 2017.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따른 시사점.” CSF 이슈분석 2017-8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기자. 2016. “「반면교사(反面教師)」 중국‘홍색공급망’의 영향 및 사례.” KOCHI자료 16-005. 서울: KOTRA.

윤대엽. 2016. “중국 특색의 제제전략: 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통일연구』 21 권 2 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윤우진. 2016.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서울: 산업연구원.

윤창용. 이승준. 선성인. 최동환. 하건형. 2017. “중국 사드 보복 영향 파헤치기.” Global Sentinel. 서울: 신한금융투자.

이나리. 2017. “중국, 반도체 사업 정부 투자로 '자신만만' 메모리로 영역 확대 ②.”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54

이두원. 김선화. 김동희. 2011. “The Estimation of the Developmental Gap between China and Korea.” 『동북아경제연구』 23 권 3 호. 서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만희. 2017. “사드(THAAD) 분쟁의 본질과 해법.”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filedn.php?conf_seq=2&bd_seq=3700&file_seq=8386.

이봉걸. 2012. “대중국수출 감소원인과 전망 .” Trade Focus Vol.11 No.37.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원근. 2015.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전망 -양안 ECFA 와 한중 FTA 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 집 4 호. 대구: 대한정치학회.

이원식. 김민경. 2017. “디스플레이산업 비중확대.” INDUSTRY REPORT. 서울: 신영증권.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2015.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연구보고서 15-10.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치훈. 이상원. 이지현. 2017. “중국 산업고도화의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영향”.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

임혜란. 2013. “생산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재편.” 『평화연구』 Vol.21

No.1.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정지현. 김부용. 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연구자료 15-0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환우. 2011.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로 본 중국 내수시장 변화와 시사점 .” Trade Focus Vol.10 No.23.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조윤기. 김운겸. 조은선. 2015. “대만·한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 간 무역의 정치적 외부성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조윤애. 박종복. 오영석. 이상. 최윤희. 2008. “신기술산업의 국제분업구조와 글로벌 전략.” 연구보고서 제 532 호. 서울: 산업연구원.

주성환. 강진권. 2012. “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1 권 제 1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지만수. 201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KIF 연구보고서 Vol.2017 No.7.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진시원. 홍익표. 2017.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학』.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천용찬. 한재진. 2016. “중국의 가치사슬 역할 변화와 시사점 - 중국 홍색공급망의 확산을 예의주시하자.” 경제주평 16-33.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Katsuji, Nakagane 저. 강희정, 강경구 공역. 2016.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무역경영사.

홍성범. 김기국. 김석관. 임상현. 유철. 2011. “슈퍼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I) -동북아 국제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1-08.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현. 2017. “삼성 LG 에 도전장. 디스플레이 굴기 선도하는 BOE.”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08000250

영문 자료

APEC. 2005. “Patterns and Prosp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APEC Region.”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05/12/Patterns-and-Prospects-on-Technological-Progress-in-APEC-2005.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

Heath, Michael. 2017. “The Strange Case of Korea and Taiwan's Diverging Export Fortun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3-27/the-strange-case-of-korea-and-taiwan-s-diverging-export-fortun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search Dept. 2016.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6: Subdued Demand: Symptoms and Remedi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6/12/31/World-Economic-Outlook-October-2016-Subdued-Demand-Symptoms-and-Remedies-44024.

Jean-Paul, Rodrigue. Fadi, Farra. Gary, Gereffi. Jun, Ni. João Carlos, Ferraz. Ludovico, Alcorta. 2014. “The Future of Manufacturing: Driving Capabilities, Enabling Investments”. World Economic Forum. Vienna: UNIDO.

Kaname, Akamatsu. 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ing Economies』 Vol. 1, No. 1. Chib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Kasahara, Shigehisa. 2004. “The Flying Geese Paradigm: A critical study of its application to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MPRA Paper 21881. Germany: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Chi Hung, Kwan. 2002. “The rise of China and Asia’s flying geese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US import statistics.” NRI Papers No. 52. Tokyo: Nomura Research Institute.

Lall, Sanjaya. Mauel, Albaladejo. 2004. “China's Competitive Performance: A Threat to East Asian Manufactured Exports?.” 『World development』 Vol.32 No.9. Amsterdam: Elsevier Science B.V.

OECD.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http://www.oecd-ilibrary.org/sites/9789264189560-sum-ko/index.html?itemId=/content/summary/9789264189560-sum-ko&mimeType=text/html.

Peter Draper, Uri Dadush, Gary Hufbauer, James Bacchus and Robert Lawrence. 2012. "The Shifting Geography of Global Value Chain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rade Policy."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Global Trade System Report. Cologny: World Economic Forum.

Robert, D. Atkinson. Nigel, Cory. Stephen, J. Ezell. 2017. "Stopping China's Mercantilism: A Doctrine of Constructive, Alliance-Backed Confrontation." SSRN Electronic Journal. Washington, DC.

Robert, Gilpin.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Sarah, Mishkin. 2013. "Chinese Companies Move into Supply Chain for Apple Components." https://www.ft.com/content/d70fca52-2691-11e3-9dc0-00144feab7de.

중문 자료

林建甫. 陳華昇. 譚瑾瑜. 吳孟道. 張博欽. 唐豪駿(린젠푸. 천화성. 탄진위. 우멍다오 장보친. 탕하오쥔) . 2016. "紅色供應鏈對台灣產業之影響評估."

台灣證券交易所 105 年度委託研究計畫. 台北: 臺灣證券交易所股份有限公司.

許碧書(쉬비수). 2015. "紅色供應鏈對我國之警訊與因應對策." 兩岸經濟統計月報 267 期. 台北: 行政院陸委會.

孫明德(쑨밍더). 2015. "從中國開始所引發全球價值鏈的變遷與影響." 글로벌 경제와 한-대만 산업협력포럼. 타이베이. 10 월.

王佳煌(왕자황). 2006. "雁行理論的研究軌跡:兼為雁行理論駁誤". 『思與言』第 44 卷 第 4 期. 台北: 思與言雜誌社.

王健全(왕젠취안). 2016. “面對紅色供應鏈的思維及因應策略.” 亞洲金融季報－2016 夏季號. 台北: 國立臺北大學亞洲研究中心.

中央銀行(중앙은행). 2017. “中央行理監事會後記者會參考資料.” https://www.cbc.gov.tw/public/Attachment/7122716544171.pdf.

莊奕琦. 劉冬威(좡이치. 류둥웨이). 2012. “經濟整合與政治衝突的關聯性—以兩岸關係為例.” 中國大陸研究 第 55 卷 第 1 期. 台北: 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인터넷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s://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mai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index.do

경제부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局) https://www.trade.gov.tw/

행정원 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 https://www.mac.gov.tw/

TAITRA http://www.taitra.org.tw/

대만경제연구원(台灣經濟研究院) http://www.tier.org.tw/

상무부(商务部) http://www.mofcom.gov.cn/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해관총서(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